

전남도, 일부 시군 반발 속 감사 완료

나주·신안공무원노조 ‘거부’에도 정상 마무리 도 “내년도 정상적 진행”...노조 “관행 개선 노력”

일부 시군 공무원노조의 반발 등 논란이 일었던 전남도의 기초지자체 감사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됐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시군 감사 마지막 지자체인 나주시와 신안군 종합감사를 최근 마쳤다.

이들 시군은 해당 소속 공무원노조가 전남도의 감사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던 곳이다.

나주시에 대해서는 지난달 11월 5-

16일까지, 신안군에 대해서는 11월 29~12월 7일까지 감사를 벌였다.

감사 도중 공무원노조의 방해 행위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군 공무원노조는 전남도의 감사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지만, 감사 기간 별다른 거부 움직임 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전남도는 나주시와 신안군을 끝으로 올해 예정된 시군 감사를 모두 완료했

으며 내년에도 7~8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초지자체 감사를 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감사를 공무원이 거부할 수는 없다”며 “종합감사가 예정된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일정대로 감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주시·신안군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전남도의 자치사무 감사를 거부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들은 법령 위반 소지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야 하는데도 전남도가 자치사무 전반에 걸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권한 없는 위법 행정이라며 반발했다.

나주시 공무원노조는 검찰에 전남도 감사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까지 했다.

해당 고발 건은 나주경찰서에 이첩돼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다.

신안군 공무원노조도 다른 지역 시군 공무원노조 연대를 거론하며 전남도 감사 거부 확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전남도의 무분별한 자료 요구를 제어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향후 감사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경단녀일자리 연계 ‘성과’ 전남도, 올해 9천여개 연결

전남도의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연계사업이 독특한 효과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11일 “올해 40여여원을 들어 경력단절여성에게 8,157개의 일자리를 연계했고, 연말까지 9,000여개를 넘길 전망이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바라는 여성이다.

전남도는 지난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여성이 경력단절 걱정 없이 육아를 하며 일·가정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국 156곳 중 전남지역에는 전남 광역,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화순, 영암, 장성 등 9곳이 운영중이다.



전남도새마을지도자대회 2018 전남도새마을지도자대회가 11일 오전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재 도의회 의장, 김진호 전남새마을회회장과 새마을가족들이 손 펼침막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평가·개선 세미나

오늘 오후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서 열려

속의민주주의 성공적 모델로 손꼽히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평가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된다.

광주시는 12일 오후 2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전남언론학회와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주관으로 열린다.

세미나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 공론화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활

동가, 언론인, 갈등관리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객관적 평가와 개선방안 등을 모색한다.

특별 세미나는 두 개의 주제로 열린다. 김기태 호남대 신방과 교수는 “광주 공론화 추진경과와 평가”를 발제한다. 김 교수는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구길용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장을 비롯해 이날제 시사평론가, 김봉철 조선대 신방과 교수, 이강원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이 각각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한다.

최영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위원장은 “광주 공론화 경험을 통한 개선과제”를 발제한다. 김재현 KBC광주방송 기자를 비롯해 박선희 조선대 신방과 교수, 서정훈 광주NGO센터장, 홍기학 동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이자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위원회 위원이 각각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한다.

이정석 광주시 시민소통기획관은 “특별세미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새로운 협치모델을 만든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노하우 공유와 더불어 공론화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는 자리”라며 “광주지역 실정에 맞게 보다 현실적이고, 참신한 발전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도가니’ 옛 인화학교 부지에 장애인 수련 시설 들어선다

국비 15억원 반영

옛 인화학교 부지에 장애인들의 심신 수련과 문화 여가 활동을 위한 복합수련시설이 들어선다.

광주시는 내년도 국비에 옛 인화학교 부지에 편의시설이 완비된 복합수련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설계비 등 15억9,000만원이 반영됐다고 11일 밝혔다.

옛 인화학교는 청각장애 학생 성폭행 사건이 밝혀져 2011년 영화 ‘도가니’가 영화로 상영되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샀고, 전면적인 재조사 결과 학교 폐쇄 및 법인설립허가 취소와 함께 법인이 해산되면서 법인재산이 광주시에 귀속됐다.

광주시는 그동안 학교용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논의한 결과, 제안사항을 반영해 장애인 수련시설, 직업 재활시설, 청각장애인복지관 등을 포함한 장애인인권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장애인인권복지타운 건립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수차례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전국적으로 전혀 없는 장애인 수련시설 건립에 우선 집중키로 하고 집행부와 장애인단체가 협력해 지속적인 사업설명회 및 설득 결

과 중앙부처와 국회의 공감대를 형성해 국비 지원을 확정 지었다.

장애인 수련시설은 전국 첫 사례로, 객실, 식당, 목욕장, 강당, 세미나실, 프로그램실, 소극장, 운동장, 캠프아이디어장, 힐링 숲 등 부대시설과 옛 인화학교 학생들의 희생이 기억될 수 있는 인권기념관과 장애인 체험장도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 규모 및 사업비에 대해 중앙부처와의 협의 절차가 남아있으며, 수련시설 세부배치 계획 및 장애인 인권복지타운 후속 조치 등 자문을 위해 시의회, 학계, 장애인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장애인 수련시설 건립 이외에도 지역 중증장애아동들의 초기장애진단과 적절한 조기 재활치료를 위한 ‘공공어린이재활 병원’ 건립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의료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 시유지를 확정 후 위탁법인을 선정해 내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공모사업 유치 등 장애인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장애인 편의성과 삶의 질 개선에 주력해 지속적인 사업설명회 및 설득 결

/황애란 기자

장현 광주복지재단 대표 사임 표명

장현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11일 사임을 표명했다.

장 대표이사는 이날 ‘사임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그 동안 몸 담아왔던 (재)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직을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임기가 3개월 가량 남았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진리를 되새기며 사임을 결심했다”며 “‘바리고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라는 법정스님의 말씀으로 퇴임의 변을 대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3월 재단 대표이사로서 부름을 받아 2년 9개월 동안 빛고을노인 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시립 장애인복지관과 시립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4개 시설 운영에 내실을 다졌다”며 “복지재단 고유의 영역인 연구기능을

강화해 광주복지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반을 다지는데 주어진 역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광주복지재단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고강도 특검감사를 실시했지만 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는 광주복지재단이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리의 복마전도 아니며, 과장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장현 전 시장의 수사와 관련해 “윤 전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했던 사람으로서 최근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송구한 마음 뿐이다”고 언급했다.

/황애란 기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이머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이머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